

대출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권혜영**

요약

본 연구는 대출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7명(27.6%)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695명(25.7%)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출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 A03044657). 본 연구는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khy124@hanmail.net).

1. 서론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그동안 투자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와 함께, 이후 직업에서의 강력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방하남·김기현, 2001; 안주엽·홍서연, 2002; 김안국, 2003). 특히,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심각하다는 평가와 함께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 상실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이병희, 2003).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4년 9.0%로, 비정규직¹⁾ 취업률은 2013년 34.0%에서 2014년 34.6%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고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이규용·김용현, 2003), 비정규직 취업률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로 인한 잦은 노동이동의 경험과 함께 기준에 이야기 되던 평생직장의 개념의 무색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을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었으며(김태언, 2012), 특히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s)으로서 실업을 예방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강조되어 왔다(어기구 외, 2012). 1967년 우리나라에서도 『직업훈련법』을 시작으로 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양성(신규실업자 훈련)을 위해 직업훈련이 시행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직 실업자의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확대·체계화되었다(김태언, 2012). 하지만 이 시기의 직업훈련의 성격은 주로 훈련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표방하면서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직업능력개발제’를 도입하였다. 2011년 전면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그해 7월부터 기존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나현미·정향진, 2012).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직업훈련에 있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훈련성격이 변화되었다는 부분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직업훈련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제도의 초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운영 및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나현미·정향진, 2012; 김수원, 2012; 정환희·장미숙, 2015)나 발전·개선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김순범, 2009; 김주영, 2010; 김민경, 2011; 강용태, 2011; 유길상, 2010) 등 정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취업을 촉진시키며 노동시장의 성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주요 분석 대상층과 내용은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용·디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른다.

인관련 교육과정과 같이 제한적인 대상과 분야에서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연령별 직업훈련실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0월 기준 전체인원 15,847명 중에서 20대의 참여인원은 4,956명(31.3%)로 나타났다. 이는 내일배움카드제의 효과성 평가연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20대의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성과에 있어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는 대학이나 전공간의 위계에 따른 차이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노동자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대졸자들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방하남·김기현, 2001; 장미혜,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현황 및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직업능력개발의 개념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고용노동부, 2014). 과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인문교육과 구별되는 것으로 실업교육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이나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부정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노동의 성격과 함께 직업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의 흐름에 의해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높은 경제발전이 있어서 “고급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기 위해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의 중점 목표도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발전 되었다(고용노동부, 2014).

우리나라에서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개념은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직업훈련과 혼용되어 오던 것이 1997년 12월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박정호, 2006). 기존의 직업훈련의 기능은 인력양성훈련에 초점을 맞춰 단순히 공급자가 주도하는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직업능력개발은 수요자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강조되고 경제

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중요시되면서 그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호, 2006). 또한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은 인적자원의 한 분야로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배양 및 기술의 향상과 관련한 활동이며, 학교와 훈련기관을 불문하고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7).

직업개발능력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크게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교양교육으로서의 목적이다. 이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태도를 길러, 직업세계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질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이종성 외, 1999). 또한 형성된 인적자원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업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보전·개발하기 위한 것이다(강순희, 2000). 둘째,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또는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순희, 2000). 이는 직업능력 개발이 인적자원 손실의 예방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청년층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은 실업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마모를 방지하고, 인적자본을 유지·축적시킴으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써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손주영, 2000).

2) 내일배움카드제²⁾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원 및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장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내일배움카드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기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전체예산인 4,195억원 중 2,678억원(63.8%)으로 편성되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주요 지원 대상은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이다(단, 구직

2)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참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훈련참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을 한 후, 내일배움카드제와 관련한 교육 이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역의 고용센터의 방문을 통해 취업상담과 훈련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상담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계좌발급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발급된 계좌를 통해 훈련을 시행한다.

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 함). 또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계좌발급은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훈련비는 교통비 및 식비 별도로 1인당 200만원(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인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급되는 계좌의 형태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서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을 하며 훈련비용 산정, 지급업무는 금융기관이 처리하게 된다(김주영, 2010). 계좌발급은 취업 전 1회 발급이 원칙이나, 180일 이상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까지 계좌가 발급된다. 계좌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계좌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4). 계좌발급인원현황은 2011년 237,827명에서 2013년 215,248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2011년 177,657명(74.7%)에서 2013년 196,542명(91.3%)으로 훈련참여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연령별 훈련실시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참여하는 비율이 항상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0-29세 사이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고용노동부, 2014).

또한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제공되고 있는 훈련과정은 2011년 47,185개, 2012년 43,833개, 2013년에는 52,088개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직종별 훈련과정 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으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음식서비스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관리직과 관련한 훈련과정은 2012년 이후 시행된 과정이 없었으며, 금융·보험관리직은 2011년 이전에는 훈련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는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더 높은 훈련제라고 할 수 있다. 이현영 외(2014)는 신체적 숙련과 관련한 직종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은 반면, 인지적 숙련과 관련한 직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밝히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직종별 훈련과정수를 살펴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직종들이 서비스직이나 미용, 숙박, 여행 관련직처럼 저숙련, 저임금을 유도할 수 있는 직종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20-30대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의 저숙련, 저임금의 노동시장에 종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직업획득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종사상지위, 직업지위, 고용형태 등), 고용안정성 그리고 임금과 사업장규모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Sewell & Hausser, 1975; Lin

et al., 1981). 직업획득은 단순히 일자리의 획득뿐만이 아닌 일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얻게 됨으로써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서 처음 획득하게 되는 일자리는 이후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졸 청년층의 직업획득은 중요한 노동시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노동시장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고용형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고용형태를 지칭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개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노사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정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으며, 그 범위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로 정하고 있다(최윤희, 2008).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복지, 근무환경, 승진기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고용형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에 비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며,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승진기회, 고용안정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형태에 있어 정규직으로의 취업여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개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써 받게 되는 보상의 개념이자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소득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임금은 근로자로 하여금 일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소이다(엄소영, 2015). 따라서 임금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써 많은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4)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정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배경, 대학특성요인, 직업훈련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 개인배경요인

대졸자의 취업성과는 개인의 인적속성과 경제사회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배경요인으로는 크게 성별, 연령 등이 있으며, 경제사회배경으로는 혼인여부, 가구소득수준 등이 있다. 먼저 개인배경요인 중 성별은 노동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임금, 취업여부, 정규직취업여부 등)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2000; 박성재·반정호, 2006; 임천순·양병무, 2006; 채구목, 2007; 이시균·윤정향,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박가

열·천영민, 2009; 정지선 외, 2011; 노경란 외, 2011; 김영식 외, 2012; 박환보, 2012; Donna, 2007; Black et al., 2005). 이시균·윤정향(2008)은 인적자본 변수가 남성의 고용확률에 큰 결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가열·천영미(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종사자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여정·백병부(2008)는 남성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배경요인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좀 더 취업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 요인 중에서 연령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임금의 영향을 연령에 증가에 따라 업무에 대한 기술 축적 및 경력의 증가로 인해 임금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청년층 대졸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용·김용현, 2003; 남기곤 외, 2010; 박천수, 2009). 하지만 연령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여정·백병부, 2008; 남기곤 외, 2010; 노경란 외, 2011; 박환보, 2012)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채구목, 2007; 채창균·김태기, 2009)가 있다. 하지만 개인배경요인에서의 연령은 그 기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취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인해 노동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과 연령등과 같은 개인배경요인 외에도 경제사회배경요인(혼인여부, 가구소득수준) 또한 개인의 취업을 결정짓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여부는 개인의 생애주기상 발생하는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김태홍·김중숙, 2002). 결혼 후의 출산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과 같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의 기대와 함께 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 역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가정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여성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민현주·임희정, 2009; Budig & England 2001; Moen & Smith 1986). 이러한 믿음은 구직자의 혼인상태에 있어 기혼인 경우에 비해 미혼인 구직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요인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직업을 획득하기까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김중성·이병훈, 2014), 이러한 영향은 응답자의 직업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현욱, 2009).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구소득 등의 변수가 취업결정과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성호용·김민경, 2003; 배호중, 2011; 황여정·백병부, 2008; 이승근 외, 2013).

(2) 대학특성요인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요인은 개인배경 외에도 대학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대학특성요인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대학유형, 대학소재지, 전공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교육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되어 단순히 대학진학의 여부에서 벗어나 대학특성 요인이 더 중요해 지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3; 김경근·변수용, 2010).

박환보(2012)는 대학유형이 임금수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서울 지역의 4년제와 전문대학의 임금격차는 존재하며, 다른 지역의 4년제와의 임금격차도 나타나 대학서열에 있어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함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결과적으로 명문대 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지방대생일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주호 외, 2003; 류장수, 2003; 오호영, 2007).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있어 출신대학의 소재지역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의 졸업생일 경우 지방 대학의 졸업생 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적인 위치인 정규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규용·김용현, 2003; 채창균·김태기, 2007; 황여정·백병부, 2008). 또한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지방대학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호영, 2007).

대학활동에서의 전공의 선택은 노동시장을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이나 취업준비활동으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Daymont & Andrisani, 1984), 대학 전공은 직업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umberger & Thomas, 1993). 유동형·민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상용직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이공계열이 예체능, 인문계열, 교육계열보다 상용직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전공은 임금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김창환·김형석(2006)의 연구에서도 공학계 전공자의 경우 노동생애 초기에 있어 인문사회계 전공자에 비해 높고 좋은 직업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짐을 분석하였다.

(3) 직업훈련요인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대상국가와 시기, 훈련과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직업훈련이 취업과 임금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Fitzenberger & Prey, 1996), 직업훈련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다(나영선 외, 1999; Agell, 1995; Eichler & Lechner, 2002). 요컨대 훈련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훈련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명확하거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대규모로 실시된 실업자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나영선 외, 1999; 이지연 외, 1999; 강순희 외, 2000), 실업자훈련에 대한 연구는 취업률, 임금, 고용유지효과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채창균(2004)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취업률에 국한하여 보았다. 교육 훈련기간 취업률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성장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경준·이철인(2008)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이 구직기간을 낮추고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전의 졸업자,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 20-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은, 2005). 또한 이병희(2000)는 IMF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실업자 재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실업자 훈련 참여가 재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주연 외(2011)는 인적속성이 비슷한 훈련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간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훈련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취업성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이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상호(2005)의 연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업 훈련 자체가 단기적인 경제적인 성과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임금향상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였다. 오히려 직업훈련의 효과성에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별로 없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있는데(이병희 외, 2009; 조준모 외, 2009), 채창균 외(2009)와 이병희 외(2009)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해 일부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 재취업확률을 높이는 등의 일부의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임금증가나 근속기간에서의 영향력은 유의미함을 추정하였다. 조준모 외(2009)의 연구에서는 훈련 미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고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 분석에 활용된 직업훈련과정은 ‘공급자 중심’에서의 노동시장의 성과를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수요자 중심’의 성격이 강한 직업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이 변화한 직업훈련경험에 있어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에 실시한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12 GOMS는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층의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만 21세~29세 사이로 연령의 제한을 두었으며, 그 수는 전체 응답자 18,250명 중 16,36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대와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대학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층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인 구직자 및 취업자는 총 2,707명이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취업자(임금근로자)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총 2,141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구직자+취업자		취업자	
		N	비율	N	비율
성별	남자	1,210	44.7	955	44.6
	여자	1,497	55.3	1,186	55.4
혼인상태	미혼	2,630	97.2	2,071	96.7
	기혼	77	2.8	70	3.3
연령	21세이상~24세미만	638	23.6	510	23.8
	24세이상~27세미만	1,425	52.6	1,104	51.6
	27세이상~29세이하	644	23.8	527	24.6
학교유형	전문대	653	24.1	519	24.2
	4년제	2,054	75.9	1,622	75.8
학교소재지	수도권	1,361	50.3	1,099	51.3
	비수도권	1,346	49.7	1,042	48.7
전공계열	인문·사회	1,469	54.3	1,153	53.9
	자연·공학	1,238	45.7	988	46.1
전체		2,707	100.0	2,141	100.0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성과이고, 독립변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여부이다. 노동시장

3) UN은 청년을 “15-24세의 젊은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나 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15-29세”의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 또는 휴학 등을 감안한 대학졸업 연령을 고려하여 대졸청년층의 연령층을 “만 21~29세”로 정의 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에 따른 노동시장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월평균임금)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조사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층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의 성과는 크게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 취업여부), 월평균임금으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기존의 이루어진 연구의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배경요인, 대학특성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순수한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단계 모형으로 구조화하였다. 분석모형 I에서는 독립변수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 요인이, 분석모형 II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배경요인과 대학특성요인을 포함하여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의 종속변수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이다. 노동시장의 성과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취업의 성공을 기본적인 지표로 하며, 일자리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고용형태(정규직 취업), 월평균임금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취업여부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서의 임금근로자로서 취업을 의미하며, 취업이 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경험이 없이 현 직장(첫 직장)에서의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취업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부여, 미취업인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월평균임금은 현 직장(첫 직장)의 입사당시 받았던 월평균 초임을 활용하였으며, 단위는 만원이다. 월평균 임금을 분석하기에 앞서 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5미만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평균임금 변수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고용형태⁵⁾는 첫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의 응답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상용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고용형태는 정규직 취업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부여, 비정규직 취업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 여부이다.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대학졸업 후의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형태에 있어서는 조사된 대졸 청년층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적어도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참여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를 내일배움카드제

5)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2 GOMS)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 참여경험으로 보았다. 참여여부는 참여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1의 값을 부여, 미참여한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로 보고된 개인배경, 대학특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배경으로는 ‘성별’, ‘혼인상태’, ‘연령’, ‘가구소득수준’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남성은 1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미혼의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2012 GOMS의 문항에서 소득 없음과 사망을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이를 하나의 변수로 합쳐,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의 범주에 순차적으로 값을 부여하여 총 9단계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대학특성변인에는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대학유형’을 포함하였다. 대학소재지변인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인지역)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수도권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수도권은 1로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전공변인은 인문사회, 자연공학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연공학계열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하고 인문사회계열은 1로 부여하는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대학유형변인은 전문대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1로 부여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2] 변인의 구성

변수		유형	변수설명
종속변수	노동시장 성과	취업여부	더미 취업=1, 미취업=0
		고용형태	더미 정규직=1, 비정규직=0
		월평균임금	연속 LN(월평균임금)
독립변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여부	더미 참여=1, 미참여=0	
통제변수	개인배경 요인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혼인상태	더미 미혼=1, 기혼=0
		연령	연속 연령
		가구소득수준	연속 소득없음, 사망=1, 100만원미만=2, 100~200만원미만=3, 200~300만원미만=4, 300~400만원미만=5, 400~500만원미만=6, 500~700만원미만=7, 700~1000만원미만=8, 1000만원이상=9
	대학특성 요인	대학소재지	더미 수도권=1, 비수도권=0
		전공계열	더미 인문사회=1, 자연공학=0
대학유형		더미 4년제=1, 전문대=0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첫째,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 졸업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확인하였다. 둘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에 따른 개인배경, 대학특성별 참여현황과 고용의 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과 t-test를 수행하였다. 셋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4. 분석결과

1)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

대졸 청년층의 주요변인별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자료의 총 응답자인 18,250명에서 연령, 구직·근무여부, 특수목적을 가진 대학(교육대)과 전공(교육, 의약, 예체능)을 제외한 대상자 9,803명 중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층은 2,70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6%이며, 그중 실질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사람은 695(25.7%)명으로 나타났다.

[표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

(단위: 명, %)

구분		N	비율
들어본경험	있음	2,707	27.6
	없음	7,096	72.4
	합계	9,803	100.0
참여경험	있음	695	25.7
	없음	2,012	74.3
	합계	2,707	100.0

개인특성별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인 경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295명(24.4%), 여성은 400명(26.7%)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이 673명(25.6%), 기혼이 22명(28.6%)로 나타났다. 대학특성별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유형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자 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7명(28.6%)이며, 4년제 졸업자 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08명(24.7%)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의 대학소재지에 있어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는 345명(25.4%), 비수도권인 경우는 350명(26.0%)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373명(25.4%), 자연공학계열은 322명(26.0%)으로 나타났다. 개인·대학특성별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현황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인특성요인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대학특성요인에서는 대학유형요인이 유의수준 0.01과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대학특성별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여경험		합계	x ² (p)	
	있음	없음			
성별	남성	295(24.4)	915(75.6)	1,210(100.0)	1.920 (.166)
	여성	400(26.7)	1,097(73.3)		
혼인상태	미혼	673(25.6)	1,957(74.4)	2,630(100.0)	.349 (.555)
	기혼	22(28.6)	55(71.4)		
가구소득 수준	소득없음	24(3.5)	64(3.2)	88(3.3)	21.641** (.010)
	100만원미만	30(4.3)	47(2.3)	77(2.8)	
	100~200만원	95(13.7)	225(11.2)	320(11.8)	
	200~300만원	136(19.6)	373(18.5)	509(18.8)	
	300~400만원	137(19.7)	447(22.2)	584(21.6)	
	400~500만원	83(11.9)	329(16.4)	412(15.2)	
	500~700만원	57(8.2)	180(8.9)	237(8.8)	
	700~1000만원	30(4.3)	62(3.1)	92(3.4)	
1000만원 이상	18(2.6)	59(2.9)	77(2.8)		
대학유형	전문대	187(28.6)	466(72.4)	653(100.0)	3.959* (.047)
	4년제	508(24.7)	1,546(75.3)	2,054(100.0)	
대학소재지	수도권	345(25.4)	1,016(74.6)	1,361(100.0)	.152 (.697)
	비수도권	350(26.0)	996(74.0)	1,346(100.0)	
전공계열	인문사회	373(25.4)	1,096(74.6)	1,469(100.0)	.135 (.714)
	자연공학	322(26.0)	916(74.0)	1,238(100.0)	
합계		695(25.7)	2,012(74.3)	2,707(100.0)	

*p ≤ .10, *p ≤ .05, **p ≤ .01, ***p ≤ .001

2)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현황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95명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참여자 695명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503명(72.4%)이며, 그중 정규직의 경우는 408명으로 취업자 중 8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평균 월평균임금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균등화 중위소득인 1,906,686원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 이하는 367명(73.0%), 중위소득 이상은 136명(27.0%)로 나타났다.

[표 5]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현황

(단위: 명, %)

구분		N	비율
취업여부	미취업	192	27.6
	취업	503	72.4
	합계	695	100.0
고용형태	비정규직	95	18.9
	정규직	408	81.1
	합계	503	100.0
월평균임금 ⁶⁾	중위소득 이하	136	27.0
	중위소득 이상	367	73.0
	합계	503	100.0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검정, t-test,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성과는 크게 취업여부, 고용형태, 월평균임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취업여부나 고용형태에 있어서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미

6) 월평균임금에 있어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2013년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인 1,906,686원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중위소득이상, 중위소득이하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시에는 연속변수로 포함하였다.

한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했을 때의 취업한 경우는 503명(72.4%), 미취업한 경우는 192(27.6%)로 취업여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참여한 경우에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95명(18.9%),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408명(81.1%)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참여여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표 6]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미경험의 노동시장 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단위: 명, %)

구분		참여경험		x 2(p)
		미참여	참여	
취업여부	미취업	374(18.6)	192(27.6)	25.513*** (.000)
	취업	1,638(81.4)	503(72.4)	
합계		2,012(100.0)	695(100.0)	
고용형태	비정규직	237(14.5)	95(18.9)	5.732* (.017)
	정규직	1,401(85.5)	408(81.1)	
합계		1,638(100.0)	503(100.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성과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평균이 더 높게 나와 근로소득에 있어서의 참여여부는 큰 효과가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값은 1.719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미경험의 노동시장 성과(근로소득)

구분	참여경험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근로소득	미참여	1,498	5.081	.424	1.719†
	참여	449	5.041	.47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졸업 후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취업자(임금근로자)이다. 따라서 최종분석 사례수는 구직자 및 취업자(임금근로자) 중에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경험이 있었던 2,707명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여부요인만이 포함된 <모형 1>에서는 참여경험이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미참여인 경우에 비해 취업을 하는 승산이 1.6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요인과 대학특성요인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참여경험과 더불어 개인적배경요인에서의 혼인상태, 대학특성요인에서는 대학소재지가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일 때 보다 미혼일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승산이 2.758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특성요인 중에서는 대학소재지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이 수도권 소재지 대학의 경우보다 취업을 하게 되는 승산이 0.8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한데, 비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은 취업을 하는 지역에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도권 소재지의 대학교에서 졸업한 청년층들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에서 취업하는데 있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S.E.	Exp(B)	B	S.E.	Exp(B)
(상수)	-1.477	.057	.228	-2.285	.977	.092
참여경험	.514***	.102	1.672	.528***	.103	1.696
성별				.088	.135	1.092
혼인상태				1.015 [†]	.403	2.758
연령				-.009	.037	.991
가구소득수준				0.28	.020	1.028
대학소재지				-.203 [*]	.099	.816
전공계열				.108	.152	1.034
대학유형				.038	.152	1.034
N	2,707					
-2LL	2751.572			2734.989		
LR chi ²	24.431***			41.014***		

[†] p ≤ .10, *p ≤ .05, **p ≤ .01, ***p ≤ .001

7)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취업알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고용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주가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소재지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 소재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9]와 같다. 비수도권 대학 소재지의 졸업자의 경우 일하는 지역 또한 비수도권인 경우가 709명, 수도권인 경우가 298명인 반면,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졸업자의 경우 현재 근무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가 110명, 수도권인 경우가 97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취업소재지에 있어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의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구직활동을 하는 수도권 소재지의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9] 대학소재지별 근무지역

(단위: 명, %)

구분		근무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대학소재지	비수도권	709(86.6)	298(23.4)
	수도권	110(13.4)	976(76.6)
합계		819(100.0)	1,274(100.0)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고용형태(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고용형태와 관련한 연구모형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된 사례수는 2,141명이다.

분석결과 참여경험여부만이 포함된 <모형 1>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경우가 미참여한 경우에 비해 정규직에 취업할 승산이 1.3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요인과 대학특성요인이 포함된 <모형 2>에서 참여경험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배경요인에서는 성별, 연령이 정규직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대학특성요인은 고용형태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요인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일 경우보다 정규직에 취업할 승산이 0.6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군복무로 인한 학업의 졸업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연령 또한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에 취업할 승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은 대부분의 취업,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에서의 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

직에 취업할 승산이 0.86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3		
	B	S.E.	Exp(B)	B	S.E.	Exp(B)
(상수)	-1.777	.070	.169	2.268	1.206	9.656
참여경험	.319*	.134	1.376	.295*	.136	1.343
성별				-.493**	.179	.611
혼인상태				-.285	.359	.752
연령				-.146**	.049	.865
가구소득수준				0.29	.024	1.029
대학소재지				.025	.127	1.025
전공계열				.061	.127	1.063
대학유형				.021	.192	1.021
N	2.141					
-2LL	1841.730			1780.191		
LR chi ²	5.524*			67.063***		

*p ≤ .10, **p ≤ .05, ***p ≤ .01, ****p ≤ .001

(4)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평균임금은 정규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했으며, 분석대상은 취업자로 한정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946명이다. 분석은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 개인배경·대학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으며, 각각 모형의 설명력과 계수값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위계적으로 투입한 최종 모형의 F값은 35.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분석결과, <모형 1>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에서 개인배경요인과 대학특성요인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 요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요인에서의 성별과 연령, 대학특성요인에서의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대학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은 남성일 경우가 여성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의 수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연령의 증가로 인해 직업에서의 기술이나 능력이 증가하는 인적자본의 발달로 인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그 효과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강은영, 2012; 남기곤 외, 2010; 박천수, 2009; 이규용·김용현, 2003). 대학특성요인에 있어서는 대학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비수도권일 경우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더 높았으며, 대학유형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의 졸업자가 전문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에 있어서는 자연공학계열일 경우가 인문사회계열일 경우보다 월평균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창환·김형석, 2006; 오호영, 2007; 이주호 외, 2003; 류장수, 2003).⁸⁾

[표 11]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5,081	.011	4.052	.182
참여경험	-.040 [†]	.023	-.029	.022
성별			.139 ^{***}	.026
혼인상태			-.009	.055
연령			.031 ^{***}	.007
가구소득수준			.004	.004
대학소재지			.140 ^{***}	.019
전공계열			-.044 [*]	.019
대학유형			.141 ^{***}	.029
N	1,946			
F	2.954 [†]		35.062 ^{***}	
$R^2(\Delta R^2)$.002(.001)		.126(.123)	

[†] $p \leq .10$,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5. 결론 및 함의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은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취업률의 증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기존에 논의되던 평생직장 개념의 무색함을 가져왔다. 이러

8) 월평균임금변수를 로그로 변환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참여 경험에 따른 월평균임금 성과는 유의수준 0.89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향요인에 있어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다.

한 상황에서 구직을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표방하면서 2008년 ‘직업능력개발제’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직업훈련에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효과성 평가, 발전·개선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많은 참여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인 취업여부, 고용형태, 월평균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나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한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가장 많은 참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은 취업성과인 취업여부, 고용형태(정규직 취업)에 있어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취업가능성과 고용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상은, 2005; 이병희, 2000; 정주연 외, 2011). 특히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취업가능성과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는 개인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는 월평균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배경요인, 대학특성 요인이 추가된 모형에서는 그 효과성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여부는 월평균임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만의 효과성을 보였을 때, 참여여부는 월평균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이 취업가능성과 정규직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로는 취업에 용이하고 정규직인 일자리에 진입할 확률이 높지만, 종사하게 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저임금의 직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은 취업가능성과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난을 타파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의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용의 질을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월평균임금수준에서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여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저숙

련, 저임금으로의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별 교육과정수를 살펴보다라도 대부분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문화·예술관련직, 미용관련직과 관련한 교육과정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직종들은 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용지속과 임금에서의 안정성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직업군임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임금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과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과정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직종에서의 일자리 관련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전반적인 훈련수준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좀 더 양질의 성격을 가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갖는 시기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정책적 성격이 변경된 내일배움카드제의 시행초기의 평가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추후 조사되는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제도초기의 성과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자들 중에서 대학을 갓 졸업 한 후의 노동시장의 성과만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 중에서는 직업훈련이 단기적인 효과성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에 따른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추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의 주요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월평균임금)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대상자들 중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해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창업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좀 더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개인의 능력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향상된 능력으로 어떻게 일자리에 진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청년층들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변수들을 분석자료에 활용하지 못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년층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앞서 학업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청

년층으로 하여금 빠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낮은 임금이더라도 취업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 있어서는 대졸 청년층의 가구내 경제적 상황 뿐만이 아닌 청년층 개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순희(2000).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강순희, 노홍성(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3(2), 127-151.
- 강용태(2011).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영(2012). 노동시장에서의 대학 교육과 임금 프리미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07). 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_____ (2014).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 _____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 금재호(2000). 경제위기와 연력이력의 활성화 :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정기학술대회, 3, 67-105.
- 김경근, 변수용(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73-102.
- 김민경(2011). 미용관련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원(20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운영 실태와 시사점.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7(2), 35-59.
- 김순범(2009). 여성 직업능력개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 김영식, 주현준, 김경선(2012).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10(4), 225-249.
- 김종성, 이병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김주영(2010). 미용관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환, 김형석(2006).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직업노동시장 성과 : 이공계 위기의 노동시장 원인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27.
- 김태언(20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정책이전 연구: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변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 김중숙(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영선, 이상준(1999).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현미, 정향진(2012). 디자인 관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 및 참여 실태 분석.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39, 17-27.
- 남기곤, 윤진호, 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6(1), 143-172.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 영향 :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9(1). 171-196.
- 민현주, 임희정(2009). 여성일자리 이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호중, 안준기(2011).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99-124.
- 박가열, 천영민(2009). 대졸자 취업영향 요인분석. *고용과업*. 3(1). 29-59.
-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정호(2006). 직업교육훈련의 법제에 관한 연구: 청년·고령자 취업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117-139.
- 박환보(2012).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연구: 대학유형과 전공계열별 대졸자 임금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 135-160.
- 방하남, 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_____(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성호용, 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65(2). 117-148.
- 손주영(2000).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교육발전연구*. 16. 83-101.
- 신현욱(2009). 직업지위 획득과정에 있어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연구. *직업재활연구*. 19(4). 143-166.
- 안주영, 홍서연(2002). 청년층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어기구, 강순희, 어수봉, 최기성(2012). 교육훈련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2(4). 1-176.
- 엄소영(2015). 대학 재학 중 인턴십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준, 이철인(2008).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 추정. *노동경제논집*. 13(1). 59-103.
- 유길상(20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의 발전방안.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2(2). 99-104.
- 유동형, 민현주(2012). 대학 전공계열과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성과분석 : 예체능 계열과 다른 계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27. 149-182.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87-118.
- 이병희(2000).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재취업 성과에 관한 준실험적 평가. *노동경제논집*. 23(2). 107-126.
- _____(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병희, 반정호(2009). 근로빈곤층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75. 215-244.
- 이상은(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23. 5-28.

- 이상호(2005). 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리뷰. 2008(5). 61-74.
- 이승근, 손경옥, 권재기(2013).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결정 및 취업유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1). 25-49.
- 이시균, 윤정향(2008). 청년층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노동연구. 14(2). 59-94.
- 이종성, 강경중, 정향진(1999). 직업교육훈련 대사전. 직업능력개발원.
- 이주호, 김선웅, 김승보(2003). 한국대학의 서열과 경쟁. 경제학연구. 51(2). 5-36.
- 이지연, 장창원(1999). 우리나라 4년제 대학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성과분석 :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1). 127-161.
- 이현영, 임업, 최예술, 김민영(2014).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숙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30(4). 3-20.
- 임천순, 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5.
- 장미혜(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정주연, 황남희(2011). 대졸청년층의 하향취업: 연령집단 및 하향취업 측정방법에 따른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 271-292.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정환희, 장미숙(2015).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미용교육 및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11(1). 47-63.
- 조준모, 박상일, 나영선, 안준기, 이재성(200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뉴거버넌스연구센터.
- 채창균(2004). 실업계 고교 교육은 성공적인가? 단기 노동시장 성과의 분석. 직업교육연구. 23(2). 59-74.
- 채구목(2007). 신규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최윤희(2008).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고용의 안정성 및 유연성의 문제. 저스티스. 106. 568-583.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Agell, S. (1995). Swedish evidence on the efficiency wage hypothesis. Labour Economics. 2(1). 102-103.
- Black, D., Daniel, K. & Smith, J. (2005). College quality and wag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 Economic Review. 6(3). 415-443.
- Budig, M. & Paula, E. (2001). The wage penalty for mother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04-225.
- Donna, B. (2007). The gender income gap and role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0. 1-22.

- Daymont, T. & Andrisani, P. (1984). Job preferences,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408-428.
- Eichler, M. & Lechner, M. (2002). An evaluation of public employment programmes in the East German state of Sachsen-Anhalt. Original Research Article. *Labour Economics*, 9(2), 143-186.
- Fitzenberger, B. & Prey, H. (1996). *Training in East Germany: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on employment and wages*. Discussion Paper,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Economics (CILE), University of Konstanz 36.
- Lin, N., Ensel, W. & Vaughn, J.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Moen, P. & Smith, R. (1986). Women at work: Commitment and behavior over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Forum*, 24-38.
- Rumberger, R. W. & Thomas, S. L. (1993). The economic return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of recent gradu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1), 1-19.
- Sewell, W. & Hauser, 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Abstract ▶

A Study on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Experiences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Kwon, Hye-Young*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graduate youth' participating in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participation experience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2012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and for analysis, used bo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ad ever heard about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was 2,707 individuals (27.6%), and among them,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ad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System was 695(25.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tion experience with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n the outcomes of labor market,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experience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they were employed and the form of employment (permanent position), whereas it did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average monthly wag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suggested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Key Words: college graduate youth, labor market outcomes,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job-training

◆ 2016.01.20. 접수 / 2016.03.18. 1차 수정 / 2016.03.21. 게재확정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khy124@hanmail.net).